

노스맨체스터, 지역 재생을 고려한 종합병원 및 부지 재개발 추진

<https://mft.nhs.uk/transforming-the-future-at-north-manchester-general-hospital/>

<https://www.theguardian.com/science/2025/apr/18/the-radical-plan-for-a-futuristic-age-friendly-neighbourhood-in-manchester>

<https://www.manchestereveningnews.co.uk/news/greater-manchester-news/first-phase-15b-critical-mega-32812419>

<https://mft.nhs.uk/transforming-the-future-at-north-manchester-general-hospital/transforming-nmgh/>



노스맨체스터 종합병원 재개발 계획

출처: Manchester University NHS Foundation Trust.
<https://mft.nhs.uk/transforming-the-future-at-north-manchester-general-hospital/> (검색일: 2025.11.20.)



Healthcare Hub 조감도

출처: Manchester University NHS Foundation Trust, Manchester City Council. (2021.3.). North Manchester General Hospital Site Programme, 29.
<https://mft.nhs.uk/app/uploads/sites/13/2022/07/NMGH-SITE-REDEVELOPMENT-PROGRAMME-SRF-MARCH-2021.pdf> (검색일: 2025.11.24.)

영국 노스맨체스터 종합병원(North Manchester General Hospital: NMGH)이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기반시설로 재개발된다. 이번 사업은 노스맨체스터가 직면한 건강 불평등과 경제적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단순한 병원 재건축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회복과 도시재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스맨체스터는 건강, 소득,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영국 내 최하위권에 속한다. 지역 주민의 기대수명은 국가 평균 대비 최대 9년 짧으며, 이러한 건강 격차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NMGH 시설의 약 70%가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로, 노후화된 의료 환경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맨체스터 시의회, NHS(National Health Service) 및 지역 보건기관은 병원 재개발을 통한 공공 서비스 혁신과 도시재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NHS는 최근 NMGH 재건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고,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와 NHS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28년부터 주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재개발 이후 병원 부지는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건강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섯 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료 접근성 향상을 넘어 생활환경과 학습 기회, 경제적 안정성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형 모델이 구축될 전망이다.

노스맨체스터 종합병원 재개발 프로그램 비전

- Healthcare Hub: 급성 의료와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합한 핵심 의료 중심지
- Wellbeing Hub: 사회적 처방, 운동·영양 프로그램 등 생활기반 건강관리
- Education Hub: 기초교육부터 직업훈련까지 아우르는 교육·고용 연계
- Village Green: 공원, 녹지,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체 활동의 기반
- Healthy Neighbourhood Hub: 근로자 주거·고령자 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이번 재개발이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건강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스맨체스터의 잠재력을 회복시키는 도시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병원·교육·주거·복지가 결합된 시민 허브 구조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030년 중반 완공을 목표로, 맨체스터 시의회와 NHS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